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69)(9/25/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9 장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1-절

시 13:1-2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마 27:46 -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멸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유배당한 것 같은 심정을 기꺼이 참고 감내하면서,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 기뻐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기쁜 마음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에게 업혀서 최고의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길을 가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2. 사람은 늘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을 벗어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룩한 순교자 라우렌티우스(Laurentius, 주후 3 세기)는 교황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멸시하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였던 교황 식스투스(Sixtus) 2 세가 처형당하는 것을 인내로써 참아내고 감당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까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성경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변함없는 주님의 동행의 역사를 약속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위로도 없는 것 같은 철저한 곤고함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 사고, 환난을 경험할 때, 그리고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거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깊은 고통과 함께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생각도 가진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는 혹독한 고난도 당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윗은 시 13 편에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시 13:1-2 - 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한 욥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다. 욥 3:1-3, 25-26 - 1.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처음에 재산과 가족을 잃고, 그 후에 자신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고통을 당했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도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사는 아내로부터도 저주의 말을 들은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철저히 외면당한 상태였다. 하나님의 위로조차 느끼지 못하던 욥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마 27:46 -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자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이러한 성경 말씀들은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인도하심이 중단되었거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1)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 도움, 위로, 인도하심 등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된다. 그러므로 외롭고 곤고하고 위로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의 느낌, 기분, 생각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생각과 느낌에 지배당하지 말라.

(2) 위로를 못 느낄 정도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다. 여전히 계신 주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시며 그 뜻을 이루신다. 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고 자기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에 맞게 움직이신다. 욥이 왜 그 기간 동안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 년인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왜 70 년동안 포로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맡기며 순종해야 한다.

(3) 위로를 느낄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성도는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한다. 시 13 편 서두에서 고통을 호소한 다윗은 마지막에는 주를 향한 온전한 의지를 선포했다. 시 13:5-6 - 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왕의 금령이 떨어졌음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집에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내어 놓고 드린 기도였다. 다니엘은 왜 죽을 각오로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위로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이란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신앙은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했다. **고전 15:58 -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Stand firm) 흔들리지 말고(Let nothing move you)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히 서며, 믿음이 흔들리면 안된다. 시험, 유혹, 상황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우울감, 생각, 느낌, 기분, 상처, 좌절감 등에 흔들리지 말자. 믿음, 마음, 생각, 삶을 지키라.

우리가 살면서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 곤고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 속에서 길이 잘 안보이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다. 주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이 정한 시간 대로 움직이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는 것, 그리고 견고히 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강하게 믿고 붙잡게 하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견고히 서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하옵소서.
3. 문제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